

##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 Polytechnics Students

김문희<sup>1</sup>, 김봉환<sup>2\*</sup>

<sup>1</sup>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커리어개발학과, <sup>2</sup>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Moon-hee Kim<sup>1</sup>, Bong-whan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areer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sup>2</sup>Division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 [ 요약 ]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상담과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 II대학 I캠퍼스에 재학 중인 11개 학과 총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 변인들 간의 상호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한국폴리텍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생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내적 요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 total of 314 students from 11 departments attending the I Campus of Korea Polytechnics II were survey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complet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indirectly

<http://dx.doi.org/10.14702/JPEE.2021.47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0 November 2021; Revised 30 December 2021

Accepted 30 December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bongwhan@sm.ac.kr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ffec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increases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uggests that through active social support around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making, which is a low-level factor for students.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Polytechnics Students

## 1. 서론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에 중요한 과업이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취업률이 감소하고 4차산업혁명의 직업변동 속에서 청년 구직자는 진로결정과 취업준비,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일반대학 63.3%, 전문대학 70.9%, 산업대학은 71.5%, 기능대학은 80.0%로 나타났다[1]. 기능대학이 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전환되었다[2].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서 2019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7,924명을 기록하였다[3]. 취업 난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확보와 4차산업사회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인력에 관한 실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다[4].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기관산업, 신기술, 시설, 제조업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과 기업만족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훈련 과정인 FL(Factory Learning)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5]. 2019년 기준 한국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80.3%, 취업 유지는 90.1%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1]. 근래 채용전형은 기업에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제시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스펙을 갖춘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자 같은 신입사원을 원하는 추세이다. 직무중심의 채용 트렌드에 맞추어 산업현장에 대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높은 취업률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강현희(2015)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아 취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안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현재의 단편적인 취업교육에 집중된 기초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은 전공이론과 실습,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위주이고

진로교과목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 각각 2학점에 불과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에서 전문 기술능력의 향상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인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대학 학생의 진로관련 변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내적인 심리요인을 파악하고 학교, 전공교수, 진로교수, 진로상담사 등 주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요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inzberg(1952)는 대학생 시기를 전 생애적 진로발달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취업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라 하였다[6]. 김봉환(1997)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7]. 대학생 시기에 직업영역으로 진입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행동이 필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들의 메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8]. 대학생 시기에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개인의 상황과 환경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송현심, 홍혜영(2010)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고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부모, 교수, 친구 등 주변사람에게 받는 관심과 격려, 자원제공 등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